

《何生夢遊錄》 解題

金南基*

1. 서론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사에 있어서 壬丙兩亂을 배경으로 하여 창작된 소설은 다른 시대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壬辰錄』, 『周生傳』, 『崔陟傳』, 『癩川夢遊錄』, 『林慶業傳』, 『朴氏夫人傳』, 『姜虜傳』, 『金英哲傳』, 『江都夢遊錄』 등 많은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은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시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삼아 전쟁의 참상과 여러 인물들의 충절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참담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초극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위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영인 간행하는 「何生夢遊錄」은 英祖 때의 문신인 李渭輔(1694~?)가 18세기 중엽에 지은 작품으로 임병양란을 배경으로 한 위의 작품들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夢遊錄系 漢文小說의 양식을 수용하여 몽유자인 何生이 꿈을 꾸다가 仙界에 들어가서 林慶業과 三學士 등을 만나 시를 수창하면서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 三凶을 지옥에서 불러내어 治罪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뒤 入山鍊道하여 蓬萊仙이 된다는 후일담이 부기되어 있다. 이 작품은 몽유자의 꿈 속 체험이 '坐定-討論-詩宴'이라는 몽유록의 일반적인 서술 구조를 따르고, 역사에 대한 褒貶意識을 토로한다는 측면에서 몽유록계 소설의 양식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¹⁾ 그런데 이 작품은 儒佛道 三教를 會通하여 忠臣賊子에 대한 褒貶意識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여타 작품과 다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別冊으로 成冊되지 못하고 『必東錄』이라는 책 속에 편입되어 있어서 연구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규장각 소장 어문학자료의 문헌학적 정리 사업'을 시행하던 중에 본 자료를 발견하고, 필자가 이에 관한 논문을 써서 학계에 소개한 바 있다.²⁾

「何生夢遊錄」은 林慶業(1594~1646) 관련 기록을 모은 『必東錄』 권12 寓言 조에 수록되어 있다. 『必東錄』³⁾ (<古 4650-127>)은 규장각 소장 도서로 18세기 후반에 임경업의 행적

* 필자: 서울대학교 규장각 조교

1) 申載弘, 「夢遊樣式의 小說史的 展開에 관한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에서 발췌 인용.

2) 金南基, 「何生夢遊錄」 연구, 『陽圃李相澤教授 還曆紀念論叢 韓國古典小說과 敘事文學 下』, 集文堂, 1998.

3) 각권의 내용에 대한 해설은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續集 史部 I』(서울대학교 奎章閣, 1994)에 실려

과 사후의 신원 과정, 사당 건립의 내력 및 임경업을 읊은 한시 등 임경업 관련 기사를 12권 3책으로 총집하여 成冊한 筆寫本이다. 序跋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編者와 筆寫年紀를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英祖를 ‘當宁’ 또는 ‘今上’으로 표기하고 있고, 引用 書目이 18세기 중엽까지의 저서를 포함하고 있어 아마도 18세기 후반경에 편집된 책으로 추정된다. 크기는 32.5×21cm이고, 필사면은 24×16.3cm이며 每面 10行 20字로 되어 있다. 그리고 卷首에 「目錄」, 「引用書目」, 「凡例」가 있고, 표지는 改裝하였다. 범례는 모두 11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必東錄』의 편집 체제와 목적, 각 문헌에 실린 기사의 異同에 대한 辨證 등을 기술하였다. 권1에 奏議, 권2에 日記, 권3에 遺事, 권4에 本傳, 권5에 傳後序跋, 권6에 諡狀, 권7에 行狀, 권8에 伸冤, 권9에 建祠, 권10에 同志, 권11에 志感, 권12에 寓言이 수록되어 있다. 권12의 寓言 조에 수록된 작품이 바로 「何生夢遊錄」이다.

2. 「何生夢遊錄」의 작자와 창작 배경

「何生夢遊錄」은 영조 때의 문신인 李渭輔가 지은 작품이다. 권11 「志感」에 수록된 李渭輔의 〈讀林將軍遺事志感〉 시와 권12 「何生夢遊錄」 말미에 붙은 李渭輔의 〈何生夢遊錄引並序〉 아래에 “出鈍窩漫錄”, “出鈍窩雜稿”라는 출전의 명기, 권두의 「引用書目」에 있는 “鈍窩漫錄 李司諫渭輔”라는 기록 등을 종합할 때 『鈍窩漫錄』과 이 책에 수록되었던 「何生夢遊錄」은 李渭輔의 저작으로 판단된다.⁴⁾ 현재 『鈍窩漫錄』이 남아 있지 않아 책의 체제 및 내용, 李渭輔의 생애에 대하여 상세하게 고증할 수 없으나 다른 文證 등을 통하여 李渭輔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한다. 『英祖實錄』, 『國朝文科榜目』, 『司馬榜目』, 그리고 여러 譜學書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생애를 재구하면 다음과 같다.

李渭輔(1694 - ?)의 字는 釣叟이고, 號는 鈍窩이다. 본관은 延安으로 月沙 李廷龜의 5세 손이다. 그의 가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조가 李昭漢, 증조가 李有相, 할아버지가 李泰朝, 아버지가 李夏臣이다. 生父는 李堯臣인데 李夏臣에게 出系하였다. 外祖는 趙聖民이고, 妻父는 輔德 趙鴻猷이다. 아버지 이하신과 生父 이요신은 벼슬에 나아가지 못하고 학생으로 생을 마쳤다. 형은 李莘輔이다.

李渭輔는 어려서 부모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였다. 이위보는 1729년(영조 5) 식년시 생원 3등에 합격하였고 1734년(英祖 10)에 충청도 직산 현감에 임명되었다. 1739년(英祖 15) 11월에 시행한 增廣榜에 응시하여 丙科 41인 중 제7등으로 급제하였으며⁵⁾ 1750년(영조

있다.

4) 『必東錄』에서 각각의 기사의 출전을 『鈍窩漫錄』, 혹은 『鈍窩雜稿』로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으나 아마도 『鈍窩雜稿』는 『鈍窩漫錄』의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26)에 실시한 증광문과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이후 1741년 司諫院 正言(정6품), 1742년 世子侍講院 文學(정5품), 1743년 司諫院 獻納(정5품), 1744년 司憲府 掌令(정4품), 1745년 司憲府 執義(중3품)와 司諫院 司諫(중3품), 1746년 世子侍講院 輔德(중3품), 1747년에 執義와 司諫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그러나 1748년 司諫으로 재직할 때에 金致良의 간음을 논척하다가 삭출되었다. 다시 1751년(英祖 27)에 世子侍講院 弼善(정4품)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朴尙儉의 일로써 간언을 올렸는데 그 글 중에서 혐의가 李台佐에게까지 미치게 되자 英祖의 노여움을 사서 삭출되었다. 이위보는 재직할 때에 임금께 수차례 간언을 올렸다가 파직되었던 것으로 보아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던 강직한 인물로 파악된다.

그런데 1755년의 『英祖實錄』 기사 중에 1751년의 기사와 관련되어 李渭輔를 논척하는 내용이 수록된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李渭輔와 관련된 기사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으로 보아 李渭輔는 아마도 1751년 이후에는 등용되지 못하였고, 얼마 뒤에 생애를 마친 듯하다. 李渭輔의 생애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문증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고찰할 수가 없다. 다만 그가 지었다고 하는 『鈍窩漫錄』이 발견되면 그의 생애와 저작에 대하여 자세하고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鈍窩漫錄』은 아마도 이 退仕 시기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何生夢遊錄」의 창작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何生夢遊錄引並序>와 「凡例」 제10항에 서술되어 있다. 『必東錄』의 「凡例」에 이 작품을 선발한 이유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을 寓言(「何生夢遊錄」: 필자 주)으로 한 것은 『精忠傳』이 東窓에서의 인과응보의 이치를 기록한 것과 같다. 이것이 비록 茫昧의 이야기에 속하여서 진실로 군자가 가히 믿을 만한 것이 아닐지라도 강개한 선비가 흥감한 바가 있어 말에 가탁하여서 애오라지 千古의 불평한 기를 쏟아내었고, 또한 天堂에도 법칙이 있음을 깊이 얻었다. 군자가 등재한 뜻이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 수록하였다.⁵⁾

이 「凡例」에 따르면 李渭輔의 「何生夢遊錄」은 중국 송나라 岳飛의 盡忠輔國을 소설화한 『精忠傳』과 주제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비록 군자들이 취할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不平之氣를 잘 드러내었고, 저자가 의도한 바가 있을 것이므로 卷末에 실는다고 하였다. 두 작품 모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포폄의식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인과응보의 이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주제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猶精忠傳之於東窓其報應之理”는 『精忠傳』에서 秦檜가

5) 『國朝文科榜目』己未年(1739년 영조 15년) 增廣榜 조에 “縣監 李渭輔 鈞叟 甲戌(1694년 숙종 20년: 필자 주) 父夏臣 生堯臣 祖泰朝 曾有相 外趙聖民 妻父趙鴻猷 執義 延安人”이 기술되어 있다.

6) 『必東錄』 권1, 「凡例」. 一. 終之以寓言者, 猶精忠傳之於東窓記其報應之理, 雖屬茫昧, 固非君子之可信, 而慷慨之士有所興感, 托於言, 而聊以洩千古不平之氣. 且深得天堂有則, 君子登之義, 故載之.

岳飛를 謀殺하였다가 결국은 그 죄업으로 죽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말한다. 「何生夢遊錄」내에도 岳飛가 등장하여 東窓에서의 冤死를 이야기하고 임경업을 위무하는 내용이 나온다. 「何生夢遊錄」과 『精忠錄』의 주제적 유사성에 대해서는 4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역사에 대한 포퓰리즘은 李渭輔가 「何生夢遊錄」 말미에 붙인 〈何生夢遊錄引並序〉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何生夢遊錄引並序〉는 『必東錄』의 다른 부분보다 蟲飾이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부분이 여러 곳 있다. 李渭輔는 〈何生夢遊錄引並序〉에서 林慶業의 충절은 南宋의 岳飛·張浚의 精忠과 한 가지인데 皇天이 그들의 충절을 가상하게 여겨 仙府에 모이게 하여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였고, 또한 삼학사와 함께 시문을 酬唱하였으니 더욱 기이한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이야기는 齊諧之說에 가까우나 장군의 충절을 보면 慷慨之情을 금할 수가 없어서 장군을 위하여 시를 짓는다고 하였다.⁷⁾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何生夢遊錄」은 李渭輔가 18세기 중반 관직에서 쫓겨난 뒤 임경업과 삼학사의 충절을 기리고, 삼흥의 背逆을 폄하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경업의 冤抑을 위무하고 精忠輔國을 현양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야기 속에 仙界와 地獄이라는 허구적 세계를 설정하고, 張浚과 岳飛, 莊子 등의 여러 인물을 하나의 서사 공간 속에 등장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임경업을 위무할 길이 없었기에 이러한 허구적 공간과 인물을 설정한 것이다. 齊諧之說에 가까운 이야기로 천당과 지옥의 분별과 원리를 말하여 인과응보의 이치를 드러낸 것은 작자 이위보가 몽유록 양식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차용하여 그들의 원역을 풀어주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신의 무죄와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하여 임경업에게 가탁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위보 자신도 金致良과 朴尙儉을 논척하다가 時議에 거슬려 결국은 벼슬에서 쫓겨나 불우하게 일생을 마쳐야 했다. 현실의 失意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선계의 快事로 위무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청허진군이 하생의 현실적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선계로 초빙하였다⁸⁾

7) 〈何生夢遊錄引並序〉는 『必東錄』 권12 74엽 a면-75엽 b면에 실려 있다. 충식이 심하여 판독이 불가능한 곳은 □로 표시하였다. 詩 부분에도 충식이 여러 곳 있으나 『必東錄』 권11에 실린 李渭輔의 〈讀林將軍遺事志感〉을 참조하여 보충하였다. 〈何生夢遊錄引並序〉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士固有曠百世而相感者, 苟有所慕, 雖曠百世而無相感之理, 矧乎人代不遠, 感斃無窮者耶. 余觀何生夢遊錄, 益驗斯理之不忒也. 於戲, 林將軍魁偉之姿, 復雪之志, 已於前輩記述, 覽之甚詳, 未嘗不擊節興□, □□山斗矣. 將軍義勇冠三軍, 忠烈炳千古, 滿腔衷赤, 指天□心, 常欲掃除腥羶, 擬復皇室, 至於再涉鯨濤, 一犁龍庭, 可壯圖哉. 遂冤血遽埋, 向非三凶之忌功, 蜚語隨而媒擊□, □□之舊業可復, 吾東之巨節可伸, 雖使三凶, 刀山劍樹, 萬刷千剗, 火灼水漂, 不足以贖其罪, 而洩其憤矣. 抑天醉未醒, 皇運告訖, 無復人力之容爲, 故生此梟獍之徒, 沮其志業耶, 漠乎其不可究也. 若張魏公岳武穆之神, 殆曠感百世者耶. 兩公之精忠諒節□□飲恨, 與將軍千載一套, 或者皇天嘉尙其秉節盡忠, □□□罹讒殞身, 殺聚仙府, □□無窮之樂耶. 三節士之共會并酬, 尤可奇也. 茲錄似近於齊諧之說, 而精誠所感, 至發□□寐, 使將軍之冥報, 昭暴宇宙, 照人耳目, 不勝尚悅慷慨也. 遂感而爲之詩. 詩曰, “將軍抱龍濤, 虜騎不敢逼. 問道潛懸師, 忍辱爲臣妾. 公時奮大義, 鯨波再利涉. 如能展壯圖, 庶可復皇業. 瑤皇方醉弼, 大志嗟未悞. 賊檣隨媒擊, 冤淚終盈睫. 泉塗改昭洗, 誰贈哀榮疊. 何生夢何奇, 異說誠於世.” 延城李渭輔鈞 謹書(出鈍窩雜稿)

8) 「何生夢遊錄」 60엽 b면. “雖然, 僕知今世無如君之有志者, 故茲煩一枉, 殺得見仙曹之盛儀上界之快事, 而不復恨人生之失意也.”

는 언급도 위의 의식과 상통한다. 이처럼 이위보는 자신의 불우와 임경업의 원역 해소라는 이중적 목적에서 「何生夢遊錄」을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위보의 이러한 의식 못지 않게 조정에서 임경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임경업 관련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평가되던 당대의 분위기도 작품 창작의 한 밑바탕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임경업은 죽은 지 반세기가 지나 조정의 논의를 거쳐 1697년(숙종 23)에 신원복관되었고, 1726년(영조 2)에 충주에 사당이 건립되었다. 신원과 사당 건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경업 관련 사실이 새롭게 조명되고, 그의 진충보국을 기리는 傳, 謚狀, 行狀, 伸冤疎, 復官傳旨, 奉安文, 賜額文, 詩 등 여러 편의 시문이 지어졌다. 이위보는 조정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경업과 관련된 사실들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제반 측면, 즉 임경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위무와 자신의 불우에 대한 한탄, 임경업의 사적에 대한 이해 등이 이 작품의 창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3. 「何生夢遊錄」의 경계와 三敎의 회통

「何生夢遊錄」은 총 7,400여자로 이루어진 중편의 몽유록계 한문소설이다. 이 작품은 유불도 삼교의 회통이라는 사상적 기반 위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여 善惡과 忠逆의 분별을 통한 포폄의식을 강하게 드러낸다. 작품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1) 東海 사람인 何生은 이름이 必奇, 자는 大異, 自號는 天遊子로 時俗을 떠나 詩酒로 자오하는 慷慨之士이다.

(2) 어느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한 仙童이 淸華眞君(張浚)의 명을 받들어 하생을 모시러 왔다고 하여 함께 仙界로 간다.

(3) 하생이 淸化진군이 좌정하고 있는 淸虛集靈府에 이르자 淸化진군은 하생이 후일에 자신의 자리에 좌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예우를 다한다.

(4) 淸化진군이 유불도 삼교의 원리와 인과응보의 이치에 대하여 말한다.

(5) 淸化진군은 자신이 南宋의 충신 張浚이라고 말하고 仙府에 오게된 내력과 하생을 초빙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하생은 평소의 심회를 말한다.

(5) 淸化진군과 하생 등은 玉帝가 여러 신선들을 玄圃의 잔치에 모이라는 조서를 받고 현포에 간다.

(6) 현포에서 瀛洲大仙 林慶業과 三仙 尹集·洪翼漢·吳達濟를 만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盡忠輔國의 일념과 시속에 대한 비분강개의 심사를 토로한다.

(7) 임경업과 삼학사가 차례로 長篇古詩를 지어 자신들의 심사를 토로한다.

- (8) 하생이 노래를 듣고 나서 네 사람의 시에 대하여 일일이 품평을 한다.
- (9) 마침 옆에 있던 西湖老仙 岳飛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한 뒤 사필귀정의 이치를 말하여 임경업의 憤怨을 위로한다.
- (10) 임경업이 악비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시를 짓자 삼학사가 차례로 이 시에 화운한다.
- (11) 여러 신선들이 질탕하게 술을 마시고 난 뒤 옥제가 삼학사에게 관직을 제수한다.
- (12) 옥제가 먼저 돌아가고 그날의 모임을 表忠宴이라고 명명한다.
- (13) 청화진군이 임경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임경업을 모해한 三兇, 즉 金自點·申歇·馬弘周를 지옥에서 불러내어 일일이 治罪한다.
- (14) 삼선이 삼홍의 치죄를 보고 크게 통쾌해한다.
- (15) 南華老仙 莊子가 모든 것이 다 한 바탕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하생에게 시짓기를 청한다.
- (16) 하생이 고사하다가 30운 排律詩를 짓자 모두 칭상한다.
- (17) 모임에 모였던 영주대선 임경업, 삼선 등의 여러 신선들이 고별하고 떠난다.
- (18) 청화진군이 하생에게 30년 뒤에 금강산 비로봉에서 상봉할 것이니 入山鍊道하라고 말한 뒤 선동에게 명하여 속세로 내려보낸다.
- (19) 하생이 꿈에서 깨어 入山鍊道하여 30년 뒤에 금강산에서 청화진군을 만나 羽化登仙한다.
- (20) 후인들이 금강산에서 달밤에 산 위에서 거문고를 타는 이를 보고 아마도 蓬萊仙(何生)일 것이라고 한다.

위의 경계를 통하여 알수 있듯이 「何生夢遊錄」의 서사적 공간은 크게 현세와 몽유세계로 나뉘어져 있다. 몽유세계는 다시 仙界와 地獄界로 구분되는데 현세에서와는 달리 善惡과 忠逆을 행한 인물군의 위치가 역전되어 나타난다. 즉 善行과 忠誠을 행한 인물은 선계에 좌정하고, 惡行과 叛逆을 일삼은 무리들은 지옥에서 모진 형벌을 받는다. 仙界에 좌정한 인물로는 淸華眞君 張浚, 瀛洲大仙 林慶業, 三仙 尹集·吳達濟·洪翼漢, 西湖老仙 岳飛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南宋의 충신인 장준과 악비는 秦檜 등의 역적 및 주화파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거나 폄적되어 자신의 뜻을 실현하지 못했으나, 사후에 선계에 좌정한다. 조선의 충신인 임경업, 윤집, 오달제, 홍익한은 김자점 등의 역적과 주화파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거나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다가 사후에 선계에 좌정한다. 현실의 불우가 사후에 반전되어 선계에서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반대로 현세에서 반역과 악행을 일삼아 득세하던 秦檜, 金自點, 申歇, 馬弘周 등은 사후에 인과응보에 따라 지옥에서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 선악과 충역의 대결 및 그들의 위치가 현세와 내세에서 역전

되어 나타나도록 구성하여 작품의 묘미를 배가시킨다. 현세에서는 선악과 충역이 혼효되고 미분화된 상태, 나아가서는 역전된 상태로 나타나지만 내세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설정된다.

그런데 선악과 충역, 현세와 내세의 반전은 유불도 삼교의 회통과 권선징악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된다. 불교의 인과론으로 본다면 이러한 결정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유가의 충절에 따른 事必歸正의 의식도 강하게 침윤되어 있다. 또한 현세의 충의지사가 선계의 높은 지위에 좌정하도록 하여 도가적 세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천상과 인간, 내세와 현세의 이치 및 유불도 삼교의 회통에 대한 청화진군의 언급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진군이 길게 탄식하면서 말하였다. “천상과 인간세계는 본래 두 가지가 아니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죽음을 당한다오. 이른 바 천당과 지옥이라는 설은 진실로 세상을 위하여 勸善懲惡하는 것이니 이치상 반드시 이르는 것이오. 서방세존께서 무량한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을 널리 구제하였으니 그 공덕은 천지와 더불어 어그러지지 않소. 그런데 시속에 얽매이는 儒士들이 한 가지로 폄하하고, 그 근본을 모른 채 그 말단만을 그릇 되어 논의하여 근거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는데 사람을 미혹시킴이 매우 쉽다고 말하는 데에까지 이르니 어찌 괴이하지 않소?”⁹⁾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죽음을 당한다」爲善受福，爲惡蒙戮」는 이치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勸善懲惡을 경계하는 것이고, 불가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이라는 설도 이 논리에 귀일되는 것이다. 속세의 비루한 유자들이 불가의 천당과 지옥의 설을 황당무계하다고 폄하하지만 실상은 유불이 一理임을 모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천상과 인간계, 천당과 지옥의 구분은 인간들에게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모든 인간이 자신이 갖고 태어난 천성을 온전히 하고 선행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유불도 삼교의 공통원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작중인물인 청화진군의 언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삼교의 원리가 한 가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계에 좌정한 유가적 인물들의 대화 뿐만 아니라 여러 道佛的 인물의 등장도 삼교의 회통을 잘 보여주는 소설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즉 이 작품에는 앞서 살펴본 유가적 인물 이외에 玉帝, 南華老仙, 莊子, 莊嚴佛祖, 太上道君, 地藏菩薩, 普天星辰, 三界羽客, 十洲와 九島의 여러 신선들이 등장한다. 이 중에서 지장보살이 다스리는 지옥계의 설정은 이 작품의 주제를 한 층 부각시킨다. 현세에서 淫惡과 背逆을 일삼은 무리들이 혹형을 받는 지옥계의 상세한 묘사와 삼흉의 단죄 장면은 인과응보의 원리와 현세와 내세의 역전을 극명하게 보여

9) 「何生夢遊錄」 59엽 a면·b면. 於是眞君長吁而歎曰，天上人間，本非二致，爲善受福，爲惡蒙戮，所謂天堂地獄之說，寔爲世勸懲，理之必至者，西方世尊以無量慈悲之心，普濟衆生，其功德與天地不壞也。而拘儒俗士，一切毀斥，朦乎其本，而妄論其末，至謂之無根不稽，惑人甚易，則不怪哉？

준다. 삼선이 삼홍의 단죄받는 모습을 보고 통쾌해하면서 忠逆에 따라 사후에 선계와 지옥의 좌정이 결정된다는 이치의 필연성을 언급한 것도 이러한 보응 원리와 상통한다.

삼홍의 치죄를 보고 삼선과 영주대선이 통쾌해하면서 天定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이치의 필연성을 언급하면서 더 이상 율분과 번뇌를 하지 않겠다¹⁰⁾고 하자 남화노선 장자는 蝴蝶夢 이야기를 하면서 眞과 假, 實과 夢의 분별이 무의미함을 역설한다.¹¹⁾ 총역과 선악에 따라 天定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총역과 선악의 분별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에 집착하는 것이 불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何生夢遊錄』은 유불도 삼교의 인물이 모두 등장하여 삼교의 회통을 역설하고, 총역과 선악에 따라 인간의 운수가 정해짐을 강조하고 있다. 즉, 天定論에 바탕하여 인간들에게 권선징악을 감계하는 효용론적 작품이다. 그런데 권선징악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담고 있으면서도 여타 작품과 달리 유불도 삼교를 회통하여 작품의 서사 세계를 추인시켜 나가는 것은 이 작품의 독특한 점으로 평가된다.

4. 「精忠傳」 「林慶業傳」과의 비교

몽유록계 소설은 표현에 있어서 묘사와 포진의 방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등장인물의 시 수창과 대화를 통하여 이야기를 구성한다. 『何生夢遊錄』도 몽유록계 소설이 보여주는 이러한 구성 방법을 수용하여 서사를 전개시켜 나간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何生夢遊錄』을 기존의 몽유록계 소설의 구성 원리와 비교하여 논의하는 대신에 『何生夢遊錄』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精忠傳』과 『林慶業傳』의 비교 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何生夢遊錄』은 특히 주제적 측면에서 『精忠傳』, 申歇의 행적과 관련된 기술에서 『林慶業傳』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精忠傳』¹²⁾은 南宋의 충신인 岳飛의 충절을 기리고, 抑을 위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악비는 간신들을 징치하고 고향에 돌아와 안빈낙도하다가 金軍이 쳐들어오자 기병하여 금군과 각처에 할거하던 도적의 무리를 격파하고 인질로 잡혀간 황제를 구하려고 한다. 그러나 간신 秦檜의 모함에 의하여 피살된다. 후에 孝宗이 즉위하여 간신을 제거한 뒤 악비와

10) 『何生夢遊錄』 71엽 a면. 大仙曰, 快哉! 君言也. 往者 鬱惱恨, 當付之一場春夢矣. 何須硬着心頭, 以增其悲乎? (중략) 天定亦能勝人, 故今能享樂於天庭. (후략)

11) 『何生夢遊錄』 72엽 b면. 南華老仙有言, “方其夢也, 不知其夢也. 願以此樂爲一大夢耶? 抑以塵界上擾擾光陰爲一夢耶? 吾不知其孰眞孰假也.”

12) 『精忠傳』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작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청나라 康熙 연간에 나온 『增訂精忠演義說岳傳』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책에 대한 해설과 경계는 江蘇省社會科學院 編, 吳淳邦 外 譯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第2卷』(蔚山大學校, 1996)에 실려 있다.

충신들의 사당을 짓게 하고 자손들에게 封賞을 내린다는 줄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精忠傳』에는 많은 도가와 불가의 인물들이 등장하여 서사 세계를 주인공시켜 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何生夢遊錄」과 『精忠傳』은 忠臣賊子에 포괄, 道佛의 인물의 개입 등 주제와 구성에서 유사성이 많다. 특히 「何生夢遊錄」 내에서 청화진군 장준이 『精忠傳』을 언급하면서 악비의 억울함이 선계에서 풀렸다고 한 부분이나, 악비가 작품 내에 직접 등장하여 임경업을 위무하는 내용 등이 실려 있어 두 작품간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임경업과 삼학사가 시를 수창하고, 하생이 이들의 시를 품평한 뒤 악비가 등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중에 서호노선이 있었는데 곧 송나라의 악봉거(악비)이다. 대개 충신이어서 신선이 된 사람이다. 대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신간에 뜻이 맞는 것은 예로부터 어려웠소. 그러나 또한 나처럼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없었소. 동창에 비가 차게 내려 끝내 杜郵의 한에 얽매이고, 북궐이 구름에 가려 橫樹의 원망을 변론하지 못하였소. 장성을 무너뜨려야 했으나 마침내 독사의 무리가 멋대로 하게 되었소. 그래서 아직도 지하에서 표창하는 말을 한 마디도 듣지 못하였소. 오래도록 죽은 이로 하여금 한을 머금게 한 것이 어찌 않으리오? 대선 같은 분은 堯舜과 같은 明君에 힘을 입어 비록 그릇되이 간사한 모의에 빠졌을라도 곧바로 정충을 깨달아 좋은 포장을 거듭 내리셨소. 서글퍼하는 뜻이 綸音에 넘쳐흘렀으니 그대의 한은 거의 끝났소. 저는 그대가 되기를 원하나 그럴 수가 없었소.”¹³⁾

「何生夢遊錄」에 나오는 악비의 언급은 『必東錄』 「凡例」에서 말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것은 청화진군 장준이 하생을 선계로 초빙한 뒤 인과응보의 이치에 대하여 말하면서 『精忠傳』에 기록된 악비의 이야기를 말하는 대목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장준은 하생에게 “저 악인이 비록 교묘하게 형을 면할지라도 사람들이 반드시 몰래 주살함이 있다. 「傳記」에서 일컫는 바 진회의 옥사가 冥府의 중요한 獄案이 된 것이 진실로 그러하다(彼惡人, 雖巧免刑, 人必有陰誅. 傳記所稱, 秦檜之獄, 爲冥司之重案者, 信然矣.)”라고 하여 현세에서 악인들이 비록 형벌을 면할지라도 내세에서는 반드시 인과응보에 따라 처벌받음을 언급하고 있다. 청화진군이 말한 傳記는 다음아닌 『精忠傳』이다. 「何生夢遊錄」은 악비를 모해한 간신들 뿐만 아니라 임경업을 음해한 삼흉 또한 명부에서 징치당하는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何生夢遊錄」은 『精忠傳』의 이야기를 빌어 고금의 충신열사의 충절을 기린다는 주제적 유사성을 지닌다.

『林慶業傳』¹⁴⁾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임경업의 무용과 원역을 서술한 영웅소설로

13) 「何生夢遊錄」 71엽 b면. 座有西湖老仙, 卽宋朝岳鵬舉, 蓋忠而仙者也. 謂大仙曰, 君臣契合, 自古爲難, 而亦無如余之有志未卒者也. 東窓雨冷, 竟媒杜郵之恨, 北闕雲蔽, 莫辨橫樹之冤, 壞其長城, 遂恣戕毒, 未聞有一語顯褒貶于冥塗者, 其令長逝者抱恨, 豈淺淺也哉? 如大仙則賴有堯舜之明, 雖枉中姦謀, 而旋悟精忠, 荐降優褒, 嗟憫之意, 溢於綸紵, 則子之恨庶其有已, 僕之所以願子而不能者也.

14) 여기에서는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人文科學研究所, 1973)에 수록된 『남장군전』(京板 27張本)을

『님장군전』 『림경업전』 등으로도 불린다. 목판본 3종과 활판본 등으로도 간행되었으며 여러 종의 필사본이 남아 있다. 작자는 미상이며 저작 시기도 확실하지 않으나 작품 속에 임경업의 신원과 사당 건립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대체적으로 1726년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⁵⁾ 『何生夢遊錄』이 18세기 중엽 무렵에 지어진 것이라는 추정에 의거할 때 당대에 유통하던 『林慶業傳』이 『何生夢遊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林慶業傳』의 내용 중에서 『何生夢遊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가장 큰 부분은 獨步(申歇)라는 중에 대한 기술이다. 독보의 실제 행적과는 달리 두 작품에서는 독보가 임경업을 배신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독보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보는 조선 仁祖 때의 고승으로 俗名이 申中歇¹⁶⁾이다. 묘향산에서 승려가 된 후 불법을 닦다가 청나라가 흥기하여 명나라와 싸울 때에 명나라 도독 沈世魁의 휘하에 있다가 심세괴가 죽은 뒤에 강남으로 가서 좌도독 洪承疇의 밑에 있었다. 청나라 군대가 북경을 치려 할 때에 적정을 정탐하다가 압록강 근처에서 우리 군사에게 잡혀 임경업에게 이송되었고, 후에 崔鳴吉에게 압송되었다. 그 즈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명나라에 소식을 보낼 사람이 필요하여 1639년 명나라에 가서 청군에게 조선의 한양이 함락되었음을 알리고 명나라 황제로부터 麗忠이라는 호를 받았다. 1642년 본국으로 돌아와 많은 상품을 받은 뒤 다시 명나라로 가서 洪승주의 휘하로 들어갔다. 洪승주가 칭에 항복한 뒤 임경업의 휘하에 있으면서 명나라 登州 등을 왕래하며 연락을 전하였고, 명나라가 멸망한 뒤 임경업과 함께 북경으로 잡혀 가서 옥살이를 하였다. 그후 본국에 돌아왔으나 간신의 모함으로 울산에 유배되었다. 또한 『必東錄』 권10 「同志」 조 아래에 부기된 〈十節臣論〉 네 번째에 독보가 기재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도 독보는 임경업을 수종하다 조선으로 돌아와 조정에서 논죄된 뒤 절도에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고 기술되어 있다.¹⁷⁾ 이러한 제반 기사를 참조할 때 독보가 당시에 임경업을 배신한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林慶業傳』과 『何生夢遊錄』에서는 독보의 행적이 이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먼저 『林慶業傳』에 기술된 독보의 인물됨과 행적을 살핀 뒤에 『何生夢遊錄』과 비교하고자 한다. 『林慶業傳』에서 임경업은 무인년(1638) 2월에 임금께 하직하고 청병에게 압송되어 끌려가던 중 압록강에서 도망하여 속리산의 암자로 피신하였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獨步를 만난다. 독보는 임경업의 청을 들어 그를 식발하여 중이 되게 하였다. 뒤에 임경업이 명나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독보는 임경업을 수종하여 명나라로 들어간다. 후에 독보는 호왕에게 천금을 받고 임경업을 속여 청병에게 사로잡히게 만든다. 그러나 후에 임경업의 충절

저본으로 하였다.

15) 徐大錫, 『林慶業傳 研究』, 韓國學論叢, 1974.

16) 『必東錄』 권10 「志感」 조의 〈十節臣論〉과 권12 「何生夢遊錄」에는 申歇로 나와 있다.

17) 『必東錄』 권 10 「同志」 〈十節臣論〉에 “獨步卽申歇, 置對後定配絕島, 後蒙放.”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에 감복한 호왕에 의하여 독보는 처형되고 만다.¹⁸⁾ 이러한 기록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보의 실제 행적과는 상이한 것이다.

『何生夢遊錄』에서도 독보는 『林慶業傳』과 마찬가지로 임경업을 배신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何生夢遊錄』에서 임경업은 지옥에 있는 삼홍을 불러 그들의 죄상을 폭로하면서 그에 합당한 형벌을 가한다. 김자점, 신혈, 마홍주의 순서로 치죄한다. 김자점과 마홍주는 그들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아 혹독한 형벌을 당한다. 이에 비하여 신혈은 비교적 관대한 형벌을 받는다. 신혈을 치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선이 말하기를 “신혈, 김자점, 마홍주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흉악한 속내는 생각컨대 오늘에도 고치지 않았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한 번 보아 그들을 꾸짖으리라. 진군께서는 어찌하여 지난 악속을 생각하지 않으시오?” 라고 하였다. 진군이 마침내 황건 역사를 불러 분부하기를 “너는 모름지기 풍도성에 가서 지장보살에게 말을 전하여 빨리 세 죄수를 형틀에 묶어 오라” 라고 하였다. (중략) 귀부의 사신이 바로 신혈을 취하여 앞에 무릎을 꿇리자 대선이 그를 책망하기를 “너는 한날 중의 무리로서 스스로 힘쓰는 뜻이 있어 내가 그 의리를 가상하게 여겨서 마침내 마음을 허여하였다. 너는 마땅히 너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부탁한 바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었다. 그런데 도리어 이해를 돌아보고 쉽고 어려움을 헤아려서 나를 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난을 피하여 마홍주 적당에게 가서 나를 비방하여 끝내 오랑캐에게 잡히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차마 할 짓이었느냐? 너는 나를 보아라. 내가 곧 입장군이다.” 라고 하였다. 신혈이 엎드려 눈물이 만면에 흐르는데 마치 부끄러워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 대선이 말하기를 “내가 보건대 저 신혈은 비록 그 죄악이 가득차서 용서할 수 없는 자일지라도 다만 벌을 줌에 김자점보다는 가볍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치죄를 다하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생각하건대 두 번이나 바다를 건넌 공적이 있으니 남으로 하여금 나를 배신하게 할지언정 내가 남을 배신할 수는 없다. 이것이 대장부의 일이다. 역사는 이 적당을 쇠끈으로 묶어서 북해의 천 길 바닥에 빠뜨리라.” 라고 하였다. 역사가 신혈을 이끌고 갔다. 대선이 말하기를 “원래 십이겁 동안 중생은 계속 윤회해야 하나 신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고, 최판관을 불러서 서신을 보냈다.¹⁹⁾

18) 『남장군전』, 『景印古小說板刻本全集 二』, 人文科學研究所, 1973, 439~441면에 나온다.

19) 『何生夢遊錄』 68면 b면-70면 a면. 大仙曰, “申歇自點弘周, 果安在哉. 其凶壯惡腸, 想今不改, 吾當一見以詰之耳. 眞君何不尋舊約耶?” 眞君遂呼黃巾力士分付曰, “汝須往鄴都城. 傳言于地藏菩薩, 急急枷來三囚焉.” (중략) 鬼使直取申歇跪前, 大仙數之曰, “汝以一髡粗, 有自效之意, 則予以爲其義可尙, 遂爾許心, 汝當焦漚肝刑, 不負予之所托者, 反乃顯耀利害, 計較夷險, 不唯不從, 以逃難至許之於馬賊, 竟至於陷虜, 是可忍哉? 汝視我, 我乃林將軍也.” 歇俯伏流涕滿面, 若有羞愧, 不能學之狀. 大仙曰 “吾觀彼歇, 雖其罪惡貫盈, 不必有曲恕者, 而但科罰殊輕於自點, 吾不欲窮治, 且錄其再涉之功, 寧人負我, 我無負人, 是乃大丈夫事也. 力士盍將此賊枷之以鐵索, 沈之於北海千尋之底也.” 力士引歇而去, 大仙曰 “元會十二劫衆生種種輪回, 而歇也殺勿豫焉.” 呼崔判官, 厲帖以送.

「何生夢遊錄」은 「林慶業傳」과 달리 신혈의 功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인정하지만 그 허물에 대해서 엄정하게 질책한다. 그러나 의미의 중심이 신혈의 배신에 두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신혈의 배신으로 인하여 復明滅淸이라는 대의를 이루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고, 바로 이 때문에 임경업은 선계에 가서 영주대선에 좌정하여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자신의 원역을 풀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林慶業傳」과 「何生夢遊錄」에서는 신혈의 행적이 크게 왜곡된 채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술의 차이점은 아마도 「何生夢遊錄」이 당시에 유통되던 「林慶業傳」으로부터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必東錄」에서 신혈을 임경업의 同志로 기술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5. 결 론

「何生夢遊錄」은 18세기 후반에 林慶業 관련 詩文을 총집한 「必東錄」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何生이라는 선비가 꿈에 선계에 들어가서 조선의 충신인 林慶業과 三學士, 중국 南宋의 충신인 張浚과 岳飛를 만나 그들과 토론하고 詩文을 수창하면서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 抑을 위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몽유록계 소설의 특징을 잘 보여주면서도 儒佛道 三教의 회통이라는 사상적 기반 위에서 忠臣賊子에 대한 포폄의식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이 작품의 작자는 李渭輔(1694-?)이다. 자는 鈞叟, 호는 鈍窩, 본관은 延安이다. 月沙 李廷龜의 5세손으로 영조조에 활동하였다. 문과에 급제하여 종3품 사헌부 執義와 사간원 司諫을 지냈는데 여러 차례 불의를 논척하다가 삭출되기도 하였다. 저서로 「鈍窩漫錄」이 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何生夢遊錄」은 이위보가 벼슬에서 쫓겨난 1651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위보는 임경업 등 고금의 충신열사들의 충절을 기리고, 그들의 원역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작품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충신들의 원역의 해소 속에는 자신의 불우에 대한 강개의 정이 우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경업을 재평가하던 당대의 분위기도 이 작품의 창작에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임경업은 1697년에 신원복관 되고, 1726년 충주에 사당이 건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경업 관련 사적이 새롭게 재조명 되었는데 이위보는 당시 관리로 있었기 때문에 임경업의 사적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임경업의 원사에 대한 위무와 자신의 불우에 대한 한탄, 임경업의 사적에 대한 이해 등이 이 작품의 창작에 큰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이 작품에는 장준, 임경업, 삼학사, 악비 등의 충신열사 뿐만 아니라 玉帝, 莊子, 莊嚴佛祖, 太上道君, 地藏菩薩, 三界羽客, 十洲와 九島의 여러 신선 등 유불도 삼교의 인물이 등

장한다. 그리고 김자점, 진희, 신혈, 마홍주 등 충신을 모함하고, 나라를 배신한 악인들이 나오기도 한다. 善과 忠을 행한 인물들이 현실에서는 실의하지만 선계에서는 무궁한 즐거움을 누리고, 惡과 逆을 일삼은 인물들은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도록 서사적 장치를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선악과 충역의 행적에 따라 그들의 사후가 결정되기에 현세의 인간들에게 勸善懲惡의 효과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물에 대한 포장과 징치는 유불도 삼교의 회통이라는 인식적 기반 위에서 탄탄하게 결구되어 있어 독자에게 숙연한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

「何生夢遊錄」은 『精忠傳』과 『林慶業傳』으로부터 일정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精忠傳』은 악비의 사적을 기린 전기소설이다. 「何生夢遊錄」에는 『精忠傳』에 나오는 내용이 일부 언급되기도 하고, 道佛의 인물군이 등장하고 인과응보의 이치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제와 구성이 유사하기도 하다. 『林慶業傳』과 「何生夢遊錄」은 申歇, 즉 獨歩가 임경업을 배신한 인물로 나타난다. 이것은 독보의 실제 행적과는 다르다. 두 작품이 모두 독보를 배신자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뒤에 지어진 「何生夢遊錄」이 당대에 유통되던 『林慶業傳』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